

불교에 기초한 인성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단기출가 동자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박 부 숙 · 이 수 경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요 약〉

본 연구는 2015년 조계사 동자승프로젝트에 참여한 남아 4, 5세 9명을 대상으로 4월 28일 부터 5월 26일까지 불교에 기초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부처님 품안에서 행복한 마음 가꾸기’를 진행하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첫째, 하루 일과 속에 자연스럽게 알아차림과 명상이 이루어지도록 격려했다. 둘째, 불교와 유아교육을 통합하는 것을 스님과 유아교육 전문가가 서로 보완하며 진행하였다. 셋째, 불교행사는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 발달에 적합하게 진행하였다. 프로젝트 진행 결과 첫째, 불교의 이해심과 자비심 실천은 유아의 기본생활 습관과 인성을 바르게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유아들이 불성의 싹을 키우게 하였다. 둘째, 자연 친화적 통합적 활동을 통해서 유아들은 생명의 귀중함과 노작의 즐거움을 느꼈다. 셋째, 음식을 감사히 먹게 되었고, 모든 생명과 존재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넷째, 부모들도 자녀의 출가를 통해서 불교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 기르기 등 자기성장의 시간이 되었다. 다섯째, 동자승은 일반인들에게 포교역할을 하였다. 여섯째,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유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으며, 사회·정서적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핵심주제어: 불교, 유아교육, 인성, 단기출가, 동자승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 내에서 영유아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동중심’이나 ‘아동의 자유’와 같은 명칭 뒤에 숨어있는 아동에 대한 성인의 관점은 영유아의 입장에서 삶을 고려하고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문제와는 관계가 적을 수 있다는 비판¹⁾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과 같은 그릇된 아동 존중은 아동의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2013년 시작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가운데 국민행복은 창의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그 과제는 인성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행복교육으로서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²⁾ 또한 2015년 7월 21일부터 정부는 인성교육진흥법³⁾을 시행하였다. 이 법의 시행목적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적시하여 앞으로 인성교육이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인성교육은 중요하게 여겨져 왔고 이제 국가에서 인성교육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불교이념은 유아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불교 유아교육은 유아를 주체적인 인격체로 보면서 불교의 가치관에 의해서 유아의 불성을 계발하여 바람직한 인격을 형성하고자 한다. 나아가 불교적 신앙심을 심어 불교인을 양성하려고 한다. 교육내용으로는 팔정도, 사섭법, 육바라밀, 삼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방법으로는 듣는 사람의 이해 능력에 맞추어 진리를 알게 하는 수기설법을 방법적 원칙으로 하여 문답형의 교육법, 비유적 방법, 인과관계를 통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불교 유아교육은 불교에 대한 올바른 종교성 개념을 획득하게 하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인격 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혜를 통한 창의성 계발과 보살행을 통한 성숙한 가치관을 확립하려고 한다(Kweon, 1998). 이러한 불교 유아교육은 유아교육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불교는 타종교를 자기 종교 내부로 수용하려는 포괄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기존의 신앙과 조화로운 공존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Kim, 2006).⁴⁾

1) 양옥승, 「유아교육과정의 재개념화 :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에서 유치원 자유놀이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연구』20(1)(서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2), 58~59쪽

2) http://www.president.go.kr/policy/assignment02.php?ass_no=2&ass_sub_no=2. 2015. 7. 3. 검색

3) 김석권, 「인성교육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 『교육정책포럼』260(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5), 3쪽

4) Kweon. E. J, *Introduction of Buddhism Pedology*. 파주, 양서원, 1998, Kim. Y. P, *Meaning of Freedom in Religious and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3, 2006./임상도, 김윤미, 「불교 유아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교육과학연구』45(4)(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14),

불교에서 인간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 즉 불성이 있다고 본다. 원래 인간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무실체의 존재로 변화하는 존재⁵⁾이다. 따라서 유아도 불성을 가진 가능성의 존재로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라는 것은 참다운 인간으로서의 심성계발을 목적으로 하는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불성의 발현에서 찾는다. 본래불인 자기성품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적극적 의지와 실천적인 수행이 강조⁶⁾된다. 불교에서 지향하는 교육활동은 유아의 발달 특성 및 수준에 적합한 균형과 조화로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유아들에게 자연스러운 불교 경험을 제공하는 불교경전을 중심으로 해야 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학습한 내용을 아이들이 스스로 즐기도록 흥미와 연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와 연계되고, 신앙과 학문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병행되어야⁷⁾ 한다.

오늘날 일부 사찰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법회를 하거나 단기출가 동자승 행사를 진행한다. 유아법회는 매주 실시하며, 단기출가 동자승 행사는 유아가 부처님 오신 날 전 사찰에 입방하여 부처님 오신 날 다음날인 환계식까지 스님으로 출가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스님의 삶을 체험하고 불교의 참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하며, 참된 불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는 1999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웅전 앞뜰에서 전통의식대로 동자승 삭발수계식을 처음 실시하였다. 유아들은 봉축행사가 끝날 때까지 조계사에서 지내며 각종 법회와 위문행사, 거리축제 등에 마스코트로 참여⁸⁾하고, 스님들의 지도 아래 새벽 예불과 108배 등 절에서 생활을 그대로 행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유아들의 심리발달적인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행사위주로 진행되어서 유아들에게 무리한 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아기 사회정서발달은 유아 자신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고, 다루고 표현하는 포괄적인 능력으로 관찰 가능한 외적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내면화하여 적응하였는가를 의미⁹⁾한다. 즉 유아기는 사회 적응 과정을 습득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인데 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은 유아의 인성 발달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조계사는 동국대학교 불교아동교육연구소와 공동 연구로 2013년부터 단기출가 동자승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2015년 정식으로

45쪽. 재인용

5) 김영옥, 송혜린, 이현미, 『21세기 변화에 적합한 영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서울: 다음세대, 2005), 25쪽

6) 김혜순,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종교교육연구』29(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87쪽

7) 권은주, 『어린이들의 불성 발현을 위한 불교유치원 통합교육활동 프로그램』(경기: 양서원, 2001), 16~18쪽

8) <조계사 ‘꼬마 불자’ 7명 삭발하고 ‘출가’>, 《연합뉴스》, 1999년 4월 29일, 2015. 7. 21 검색

9) 고윤희, 김숙령,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 및 영유아 탄력성이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33(2)(서울: 한국유아교육학회, 2013), 31쪽

MOU를 체결하여 유아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불교이념에 기초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유아발달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단기출가 동자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1. 불교이념에 기초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유아발달특성에 맞게 구성한다.
2. 단기출가 동자승 프로젝트의 과정과 실천 사례 결과를 분석한다.

Ⅱ. 불교에 기초한 유아인성교육의 이론적 고찰

1. 불교이념에 기초한 유아인성교육방안

인성교육은 지·정·의를 골고루 갖춘 전인 교육을 의미하며, 인성교육의 최고 덕목으로 “더불어 살기”를 제시한다. 이는 동양에서 추구해 온 중요한 덕목이며, 현대 사회의 극단적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목표이며 개인주의가 팽배해 가는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실천 방안이다. 인간 중심의 생각과 생활 자세에 머물지 않고 생태적 관점으로 나아감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물론 모든 생명체와 무생명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함으로써 인간생활을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고, 황폐화 되어가는 지구를 되살려 인간 생명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¹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유아기 인성교육은 생애 초기에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확립하고 기본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자신의 생활을 가족이나 공동체적 가치에 비추어 반성하고 점검하여 봄으로써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태도·행동을 함양하도록 하는 일¹¹⁾이다.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은 지식에 치우쳐 도덕적, 정서적 측면의 교육이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유아기 아동들은 지나치게 의도적인 주입식의 교수학습방법보다는 유아발달단계와 흥미에 적합한 교육활동으로 구성되어 자발적인 놀이의 즐거움이 보장되면서 불교정신이 내재화되도록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대상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강제성이 강한 종교교육은 포교적 차원에서 볼 때도 그 성과가 의심되는 미숙한 방법¹²⁾이라고 우려되고 있듯이, 유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교육의 활

10) 이수경, 『(어린이 인성교육을 위한) 자연명상 프로그램』(경기: 양서원, 2006), 9쪽

11) 김영옥, 송혜린, 이현미, 앞의 책, 44쪽

동에서도 각 발달단계와 흥미에 적합한 자연놀이와 극놀이, 명상놀이 등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활동은 타 종교인이거나 비종교적인 학부모들의 심리적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불교적 성향과 종교성을 함께 함양시킬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¹³⁾된다.

따라서 불교이념에 기초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유아발달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유아 마음에 내재된 종교성을 끌어내어 바른 종교관을 확립함과 유아의 전인적인 인간상 확립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2. 불교 아동관

불교의 인간 본성관은 ‘一體衆生悉有佛性(일체중생실유불성)’으로 대표된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으며,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중생 일천제(一闡提)¹⁴⁾도 불성이 있다고¹⁵⁾ 하였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어린이도 본질적으로 성인과 마찬가지로 불법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 인간관을 반영¹⁶⁾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은 보살행을 하는 구법자, 또는 진리를 향한 굳은 의지자로 불성을 소유한 개체로서 독립적인 존재로 아동기는 독창적인 심리적 사고를 지니며 자신의 의지와 창의성으로 보다 나은 발달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졌다고¹⁷⁾ 보고 있다. 아동은 자아를 찾는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자기에게 숨겨져 있는 진성을 찾아냄을 시작으로 본래 내재된 가능성이 펼쳐져서 결국에는 자기를 초월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은 자신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자각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¹⁸⁾이다.

불교의 아동교육은 사물과 사건의 인과관계를 연관 짓는 연기적 방식으로 보고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주변의 사물과 자연 및 사회적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면서 나와 남을 함께 위하는 도덕적 삶과 나누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라¹⁹⁾고 말하고 있다.

12) 김용표, 「종교의 자유와 종교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20-21쪽.

13) 김혜순,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방향 탐색」, 『한국불교상당학회지』15(경주: 한국불교상당학회, 2013), 10쪽

14) 조수동, 「여래장과 일천제에 관한 연구」, 『철학논총』3(대구: 영남철학회, 1987), 79쪽.

15) 대정장 12, 대반열반경, 권25, 769쪽.

16) 박선영, 『불교의 교육사상』(경기: 동화출판공사, 1981), 104쪽

17) 권대원, 한혜경,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에 나타난 아동교육 연구」, 『한국불교학』50(서울: 불교학연구회, 2008), 647쪽

18) 차미경, 「幼兒의 注意 集中力 향상을 위한 佛敎의 禪活動 프로그램」(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8쪽

19) 문미옥, 이혜상, 민행난, 『한국전통문화와 유아교육』(경기: 양서원, 2004), 158쪽

불교아동학에서는 부처님의 사상과 수행방법을 불교 어린이의 개념 정의를 기본으로 하여, 아동기에 바른 종교성 확립과 동시에 어린이의 잠재성 및 사회성을 개발하고 나아가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인간관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종교성 획득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기에 기초가 확립되고, 이때 종교적 인상과 영향이 일생을 두고 지속되므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성 형성에 있어 주위의 바람직한 종교적 환경과 어린이의 심리 발달에 올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의 지도로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적인 어린이를 위한 교육적 접근이 수반²⁰⁾되어야한다.

불교이념을 기초로 한 유아교육의 목적은 불교 아동관에 입각한 교리를 통해서 심신을 바르게 닦고 참된 진리를 깨달아 그 깨달음을 스스로 실천하며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3. 단기출가 동자승 프로젝트에 대한 고찰

동자승(童子僧)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린 승려를 말한다. 본 연구의 동자승은 유아가 부처님 오신 날 전 사찰에 입방하여 삭발수계식을 통해 동자승이 되어 부처님 오신 날 다음날인 환계식까지 단기 출가하는 동자승을 말한다. ‘고려사’에 의하면 전통사회에서 사찰이 비형식적인 아동교육기관으로 승려가 출가아동과 재가 아동의 비형식적인 교육을 담당했던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밝히고 있다. 오래전부터 전통사회에서 사찰과 승려가 비형식적으로 일반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¹⁾ 즉 사찰에서는 불교이념을 아동의 교육을 통해서 전파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출가자의 숫자는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불교의 명맥조차도 단절되지 않을지 염려스럽다. 불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명맥 유지가 불투명한 것이다. 무엇보다 불교계의 어린이포교나 청소년회관의 운영, 불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도 중요한 방안 중 하나일 것이다.²²⁾

일부 사찰에서는 어린이 법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불교 아동교육의 실천을 위해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어린이 법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불성의 싹을 키워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²³⁾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을 가장 순수한 시기에 불교와 만나게 해주는 역할

둘째, 불교와의 만남을 통해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인 불성을 깨닫게 하는 역할

20) 유영란, 「불교 어린이법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1쪽

21) 신양재, 권은주, 「고려시대 유아교육」, 『유아교육연구』24(1)(서울: 한국유아교육학회, 2013), 17쪽

22) 한태식(보광), 「대한불교조계종의 출가자 현황과 출가 제도의 개선방안」, 『大覺思想』17(大覺思想研究院, 2012), 210쪽

23) 제은경, 「어린이 법회 현황 조사 및 프로그램 모형 연구」(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6-7쪽

셋째, 깨달음을 통해 사회에 보탬이 되는 바른 어린이로 자라도록 하는 역할

넷째,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성장하여 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역할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어린이 법회를 위해 교사는 어린이 발달에 적합하게 불법을 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즉 유아의 정서, 사회성, 인지, 신체발달에 따른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의 단기출가 동자승 프로젝트는 부모님과 함께 4회기 적응기간을 거쳐서, 유아들이 가족 곁을 떠나서 사찰에서 합숙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불교이념에 기초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유아발달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교사와 함께 놀이 속에서 실행하며, 유아들이 스스로 불성을 찾기는 힘들므로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이념을 느끼고 실천하는 기회를 갖는다. 즉 아동의 내적인 가능성을 존중하며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전인적인 인성 발달에 목적을 둔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기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조계사의 홍보를 통해 지원하였으며, 면접과 면담으로 최종 선별하여 서울, 경기, 전라도 등에서 만 4, 5세 남아 9명<4세(2명), 5세(7명), 평균 77개월>으로 구성되었다. 기간은 2015년 4월 28일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부처님 오신 날 다음날인 5월 26일 환계식까지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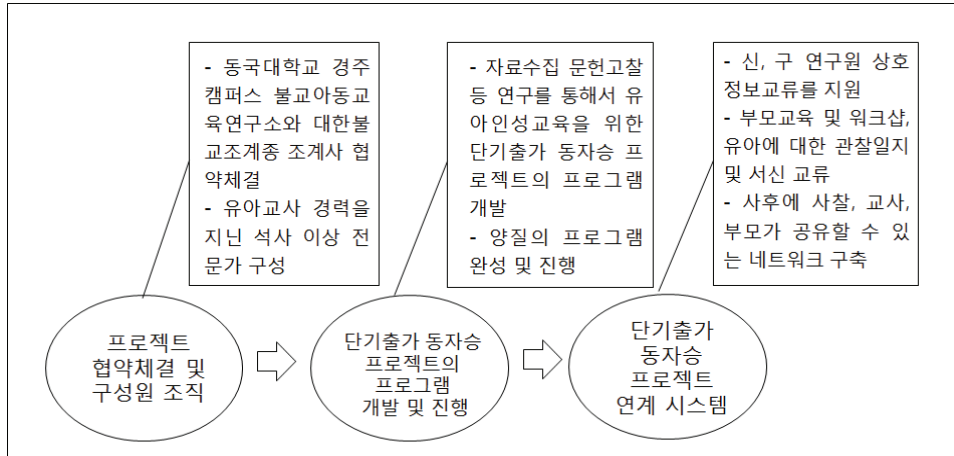
2. 연구 절차

1) 전담인력 구성

협약단장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아동교육연구소의 소장으로 동자승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조계사와 연계 활동을 추진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유아교육기관 현장교사 경력을 지닌 석사 이상의 교사 3인과 연구자 1인, 불자 보조교사 1인으로 불교에 기초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기본생활 습관, 일상양육 및 식사지도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3년과 2014년 조계사 단기출가 동자승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던 교사 3인은 참모진으로 프로그램 자료 협조 및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교사들과 함께 사찰에 입방한 후 24시간 유아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프로그램을 교사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2) 2015년도 단기출가 동자승 프로젝트 연구 절차

단기출가 동자승 프로젝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2015년 단기출가 동자승 프로젝트 연구 절차

3. 자료수집 및 분석

1) 문헌고찰

불교와 불교유아교육, 인성, 명상, 생태유아교육프로그램, 단기출가, 동자승, 2013, 2014년 동자승 프로젝트 자료 등에 관련된 문헌과 참고 자료를 조사하여 이론적 근거와 연구동향을 살피고, 불교이념에 기초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유아발달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2) 자료 분석

초기적응기간 4회기 모든 활동은 동영상 전사하여 분석하였고, 사찰에 입방 후 17박 18일 동안 연구자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프로그램 진행과정을 관찰하였다. 면담은 연구자가 실시하였으며 유아, 스님, 부모, 사찰 관계자, 방송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비형식적인 대화, 비구조화 된 형태로 개인면담 위주로 진행하였다. 학부모의 경우 사전, 사후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관찰과 면담, 일지작성, 사진촬영, 동영상 전사는 스님과 사찰 주무관 등 참여한 구성원 모두의 자료를 수집하고, 유아들이 잠든 시간 회의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고 연구자는 사례 내용을 분석하였다.

IV. 단기출가 동자승 프로젝트의 실제

1. 불교에 기초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요

1) 불교에 기초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교육이념

어린이 불교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붓다의 인격을 닮은 밝고 행복한 사람이다. 어린이도 성불할 수 있다는 불성설을 바탕으로 어린이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에 이르기까지 아끼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원융과 화해의 덕목을 키워간다면 미래는 더욱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불국토를 지향하는 불교계의 염원이며, 불교아동교육의 목표²⁴⁾이다. 불교에서는 삶의 본질을 괴로움이라 보며 그것을 초월한 열반의 세계는 즐거움, 다시 말해 행복을 뜻하므로 궁극적으로 수행의 목적은 행복 추구²⁵⁾에 있으며 지혜와 자비만이 행복에 이르는 길²⁶⁾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처님 품안에서 행복한 마음 가꾸기’라는 주제로 불교이념을 기초로 한 유아를 위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하였다.

2) 불교에 기초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교육목적 및 목표

본 프로그램은 아동의 내적인 가능성을 존중하며 ‘불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전인적인 인성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확립하고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한다.

둘째,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니고 행동으로 실천한다.

3) 불교에 기초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교육 방법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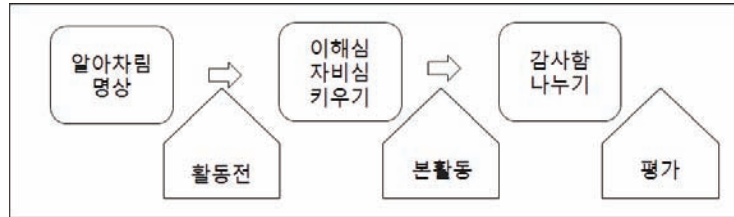
활동을 진행할 때마다 매 순간 알아차림 명상, 인간이 지켜야 할 두 가지 약속인 이해심과 자비심²⁷⁾ 키우기, 감사함 나누기를 바탕으로 불교이념과 유아교육을 통합하여 진행하였다. 유아 자신이 현재 행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심과 자비심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상대를 존중하게 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유아 자신이 행복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즉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이다.

24) 황옥자, 「불교와 아동교육」, 『종교교육학연구』30(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1쪽

25) 강경구, 「불교의 행복론 고찰 :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인간과 문화 연구』15(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2009), 5-6쪽

26) 이수경a, 「불교유아교육을 위한 원장·교사 워크샵」,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3회(경주: 동국대학교 교사연수, 2005), 28쪽

27) 틱낫한, *Planting Seeds*, 이수경, 혜주스님, 『틱낫한 스님의 마음 정원 가꾸기』(서울: 판미동, 2013), 159쪽



<그림 2> 불교에 기초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모형

4) 불교에 기초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본 연구는 이수경(2006)의 『(어린이 인성교육을 위한) 자연명상 프로그램』, 턱낯한 스님(2011)의 『마음 정원 가꾸기』와 2013년, 2014년 단기출가 동자승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유아 인성교육을 위한 단기출가 동자승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표 1> 프로그램 활동내용

프로그램	불교의 가르침	유아 인성교육내용	인성덕목
부모님과 함께 초기적용 프로그램	- 사찰 예절 - 부처님과 친해지기 - 부모님과 함께 수행놀이	- 부모님과 유아의 소통 ; 소중함과 사랑 느끼기 - 두 가지 약속(이해심과 자비심) 이해하고 지키기 - 알아차림을 통한 행복한 마음 느끼기	• 예 • 효 • 존중 • 배려 • 소통 • 협동
약속 & 자발적 놀이	- 상구보리 하화중생 : 사제동행의 교육 - 어린이 오계 실천 - 지행합일 : 실체적 삶의 교육 - 무소유 : 절약 절제의 교육 - 줄타동시 : 적기의 교육	- 어린이 오계와 함께 입방식 날 우리들이 지켜야할 약속을 토의 통해서 정하고 지키기로 약속 - 자발적 놀이 - 장난감 없는 놀이시간 - 나만의 인형 극놀이	• 예 • 효 • 정직 • 책임 • 존중 • 배려 • 소통 • 협동
감사함 기르기	- 먹을 만큼 공양 - 자비심과 감사함 - 공양게송 - 생명력이 깃든 먹을거리의 중요성	- 감사하는 10가지 - 나의 장점 찾기 - 깨어있는 식사 - 식사 시간의 명상 - 텃밭 수확물 요리활동	• 예 • 정직 • 책임 • 존중 • 배려 • 소통
자연 친화적 통합 활동	- 동일체심²⁸⁾ : 우주와 자연과 인간은 하나 - 불살생 : 생명존중 교육(어린이 오계 첫째, 모든 살아 있는 생명을 아끼고 자비로 실천)	- 자연과 관계 맺기 - 오감으로 자연의 생명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의 중요성 - 산책 : 사색, 여유, 자유, 자연스러움, 즐거움, 만남, 오감체험	• 정직 • 책임 • 존중 • 배려 • 소통

	- 기다림, 인내심 - 생명의 신비감과 소중함 알기 - 흙의 생명력과 소중함 알기	- 모종 심기 및 가꾸기 - 노동의 가치와 수확의 보람 - 먹거리의 중요성 - 수확물을 통한 통합적 활동²⁹⁾	• 협동
명상을 통한 예술놀이	- 알아차리기 : 감각, 호흡, 걸음 - 깊게 관찰하기 - 화 다스리기 - 만다라 구성	- 모든 감각 깨우기 - 일과 속에서 다양한 명상 - 명상을 통한 예술놀이 : 동작, 미술, 음악, 문학<예: 두가지 약속, 꽃에 물주기>	• 존중 • 배려 • 소통 • 협동
공동체 놀이 즐기기	- 이해와 자비심을 길러주는 전통적인 불교문화활동	- 전통문화 체험 <전통미술, 전래놀이, 전래동요, 전통춤, 전래동화> - 공동체 모듬 놀이	• 예 • 책임 • 존중 • 배려 • 소통 • 협동
불교 문화 행사 및 의식	- 스님과 법당에 대한 예절 - 예불 : 삼배, 삼귀의, 반야심경, 사홍서원 - 불교 관련 이야기 : 불교동화, 대웅전 벽면의 이야기 - 다양한 불교행사를 통해서 불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	-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 교리가 이루어지도록 연계 - 불교 이야기와 관련된 동화 제작하여 연계 - 찬불가 부르기 - 사찰 행사와 교육프로그램을 서로 조율하여 진행	• 책임 • 존중 • 배려 • 소통 • 협동 • 협동

2. 단기출가 동자승 프로젝트의 실제

1) 하루 일과 예시

하루일과는 규칙적으로 계획하지만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진행하였다. 하루 일과의 예는 다음과 같다.

<표 2> 하루일과 예시자료

시 간	주요일과	내 용
7:00 - 7:30	아침 맞이	화장실 다녀오기 & 옷 입고 세수하기 경내 한 바퀴 및 텃밭 가꾸기 자연과 마음나누기<자연명상>
7:30 - 8:30	아침공양	공양 후 이 닦기<식사명상>
8:30 - 9:30	자유놀이	자유놀이, 바깥놀이 및 산책, 예불준비<건기명상>
9:30 - 10:00	예불	대웅전 사시예불 참석
10:00 - 10:30	간식공양	간식 공양<간식명상> 후 이 닦기, 화장실 다녀오기
10:30 - 12:00	아침열기	아침열기-노래 및 몸과 마음 움직임

28) 권대원, 「불교 생명존중사상의 유아교육적 적용」, 『아동권리교육』4(2)(경기: 한국아동권리학회, 2000), 173쪽

29) 임재택, 하정연, 조채영, 노진형, 홍정애, 강현진, 김미옥, 『선생님 텃밭가요』(경기: 양서원, 2000).

	및 모듬 놀이	모듬활동 부처님품안에서 마음가꾸기-습식수채화<그림명상>
12:00 - 13:00	점심공양	손 씻고 공양하기, 공양 후 이 닦기<식사명상> 화장실 다녀오기
13:00 - 14:30	바깥놀이	바깥놀이 및 산책<견기명상, 구름명상, 자연명상>
14:30 - 15:00	오후 맞이	휴식
15:00 - 15:30	간식공양	간식 공양 후 이 닦기<차명상, 과일명상>
15:30 - 18:00	자유놀이	자연친화적 놀이-텃밭체험, 원예<자연명상, 꽃명상> 전래놀이<공동체 모듬놀이> 요리활동
18:00 - 19:00	저녁공양	손 씻고 공양하기, 공양 후 이 닦기<식사명상> 화장실 다녀오기
19:00 - 20:30	이야기 나누기	경내산책 후 자유놀이 하루일과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20:30 - 21:00	잠 잘 준비	몸 돌보기. 옷 갈아입기, 동화감상<호흡명상>
21:00 -	취침	꿈나라

2) 초기적응 프로그램

단기출가를 하기 전에 유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총 4회 부모님과 함께 초기적응 프로그램은 진행하였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과 부모님, 유아가 각각 하는 활동으로 실시하였다.

<표 3> 초기적응 프로그램 일정

회기	날짜	활동 내용
초기 적응 1차	1회 4월 30일(목) 15:00~18:00	- 반가운 만남 - 마음열기 : 노래 및 몸과 마음 움직임, 명상. - 가족 소개 - 부모님과 함께: • 나만의 인형그리기<유아가 그린 그림이 인형이 되어 옴> • 유리병 속에 담긴 마음 • 한마음 그리기
	2회 5월 1일(금) 15:00~18:00	- 마음열기 : 노래 및 몸과 마음 움직임, 명상. - 부모님과 함께: • 전래동화 효성스러운 호랑이<TV동화 감상> • 마음 정원 만들기<원예-다육식물과 마음나누기>
초기 적응 2차	3회 5월 6일(수) 15:00~17:00	- 마음열기 : 노래 및 몸과 마음 움직임, 명상. - 유아 : 색채로 소통하기<습식수채화> - 부모 : 마음 나누기<나의 장점 찾기, 자신감 키우기>
	4회 5월 7일(목) 2:00~18:00	- 마음열기 : 노래 및 몸과 마음 움직임, 명상. - 유아 : 사찰음식<두부경단> 만들기 - 부모 : 마음 정원 가꾸기<나의 장점 찾기, 두 가지 약속(이해심과 자비심), 명상>

		- 부모님과 함께: • 부모님과 마주보고 21배
--	--	-------------------------------

3) 불교에 기초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예시활동

(1) 호흡을 통한 알아차림 명상

다양한 명상 활동은 현재 일어나는 것을 유아들이 알아차리도록 도와주었다.

<표 4> 호흡을 통한 알아차림 명상의 예³⁰⁾

활동명	호흡 명상
활동 목표 - 호흡하며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인식한다. - 공기와 몸의 흐름을 인식하고 유아 자신의 마음도 인식한다.	
준비물	종
활동 내용	1.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게 되고, 의식적으로 숨을 내쉬면 몸 안에 공기가 바뀌는 것을 알게 된다. 2. 의식적인 호흡을 종을 치며 세 번 반복한다. 3. 자신을 관찰하고, 남을 배려하고 바르게 생각한다. 4. 오늘 있었던 마음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살핀다. 5. 친구와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6. 친구를 배려하고 공정하게 대한다. 7. 친구를 인식하고 마음나누기로 확장하여 진행한다.

(2) 자연 친화적 통합 활동

자연과 만남, 접촉을 통해 자연의 존귀한 생명력을 관찰하며 오감으로 느꼈다. 또한 식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체험을 통해 감사함을 느끼며, 자연의 모든 존재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었다.

<표 5> 산책 및 텃밭 가꾸기 통합적 활동의 예³¹⁾

활동명	자연과 마음 나누기
활동목표 - 자연을 깊이 관찰함으로써 민감하게 반응한다. - 모든 생명체는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한다.	
준비물	조계사 뒤 공원, 텃밭
활동 내용	1. 텃밭이나 공원에서 시작한다. 어제와 다른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며 느낀다. 2. 교사가 자연에 대한 변화(꽃, 야생화, 개미, 지렁이, 돌, 흙 등등)를 민감성을 갖고 표현하며 상호작용한다. 자연의 신비함과 생명력을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3. 매일 관찰하며 변화를 느끼고 생태계의 순환적, 상호의존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끈다.

30) Lee, S. K, *A Study of a Korean Kindergarten's use of Buddhist-Oriented 'Meditation Art Projects' to Increase Creative Art Expression in Painting*. Buddhist Studies Review, 28(1), 2011, 123~124쪽

(3) 감사함 나누기

먹는 것은 우리 자신과 세상에 폭력적인 일인지 모른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동식물을 파괴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차리고 감사함을 갖도록 하였다.

<표 6> 감사함 나누기의 예³²⁾

활동명	자비심을 가지고 먹기
활동목표	이해심과 자비심을 기르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음식을 먹는 것임을 알고 감사함을 갖는다.
준비물	식사 시간의 기도문
활동 내용	1. 음식을 먹을 만큼 담아 식사 준비를 한다. 2. 식사 시간의 명상 기도문을 만든다. 「이 음식은 땅, 하늘, 비, 태양과 같은 우주 전체의 선물입니다. 이 음식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농부 아저씨 감사합니다. 음식을 살 수 있도록 상점에서 일 하시는 분들과 요리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비심을 키우고 사랑과 이해심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행복해지며 서로를 사랑하겠습니다.」 - 함께 만든 ‘식사 시간의 명상’ 기도문을 함께 암송한다. - 오늘 나온 식단의 한 가지 음식을 정해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부터 감사함을 이야기한다. - 공양게송을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시작한다. 3. 유아 자신이 담은 음식은 모두 먹도록 한다. 4. 다 먹은 그릇은 스스로 정리한다.

(4) 명상을 통한 예술놀이

이 활동은 프로그램 중반 이후에 유아들이 서로 친해졌을 때 실시하였다.

<표 7> 명상을 통한 예술놀이의 예³³⁾

활동명	꽃에 물주기
활동목표	- 친구의 장점을 생각할 수 있다. - 배려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준비물	색연필, 꽃이 그려진 활동지
활동 내용	1. 모두 둘러앉은 후 꽃 중앙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자신의 좋은 점을 생각한다. 2. 꽃잎 안에는 스스로 생각한 자신의 좋은 점을 써 넣는다. 3. 그룹의 중심을 정하고 왼쪽으로 전달하며 그 사람의 좋은 점이나 장점을 차례로 꽃잎 안에 적거나 그림을 그려 넣는다. 명상을 통해서 진심으로 친구의 좋은 점을 떠올린다. 4. 마지막으로 자신의 꽃을 한 송이씩 받고 꾸민다. * 자신의 꽃을 받고 현재 마음이 어떤지 느낌을 나눈다.

31) 이수경, 앞의 책. 24쪽

32) 틱낫한, 앞의 책. 171~174쪽

V. 결과 및 해석

불교이념에 기초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유아발달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활동을 진행할 때마다 모형에서 제시한 매 순간 알아차림 명상, 이해심과 자비심 키우기, 감사함 나누기를 적용하였다.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과정 및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불교이념을 기초로 한 유아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첫째,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과 명상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걷기명상, 그림명상, 미소명상, 구름명상, 조약돌명상, 음식명상 등 모든 명상은 알아차림으로 시작하였다. 경나를 걷다가도 걷기 명상을 통해서 두 다리로 걷고 있음을 느끼고, 그림을 그리면서도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지를 알아차리고, 친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면 친구를 원망하지 않고, 불편한 마음을 알아차렸다. 서로 화내고 다투는 상황이 점점 줄었고, 유아들의 모델링이 되어야 하는 교사도 알아차림 명상을 유아들과 함께 수행하며 이해심과 자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였다.

유아들에게 제가 모델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해심과 자비심을 베풀며 스스로 알아차림을 실천하고 평정심을 갖도록 노력했어요. 어느새 유아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해심과 자비심을 통해 유아들과 자연스럽게 신뢰감이 형성되어 보람 있었습니다.

<교사인터뷰, 5월 19일>



<그림 3> 들숨날숨
알아차림 명상



<그림 4>
미소명상



<그림 5>
구름명상



<그림 6>
과일명상

둘째,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스님과 교사는 불교이념과 유아발달 특성을 서로 보완하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입방식을 마치고 이틀 후 삭발수계식을 하게 되었다. 유아들은 삭발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였다. 스님은 삭발하는 이유와 가사 장삼을 입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유아들은 불안감 없이 삭발 후 의연하게 스님이 가르쳐준

삼배를 재연하였다.

스님이 대웅전 벽면의 벽화를 동화로 들려주었을 때 교사들은 관련된 동화를 제작하여 유아들에게 들려주거나, 주제에 맞는 동화를 연계하여 들려주었다. 즉, 사찰과 교사 간의 서로 이해와 존중, 역할 분담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 경험이 없는 보조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유아들과 지내본 경험이 없어서 유아교육을 잘 모르는데, 불교와 유아교육을 함께 밸런스를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불교와 유아교육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니다. <보조교사 인터뷰, 5월 30일>



<그림 7>

삭발수계식



<그림 8>

대웅전 벽화이야기



<그림 9> 잠들기 전 불교

이야기를 동화감상으로 연계

셋째, 단기출가 동자승 프로젝트는 불교행사를 수반하므로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 인성발달에 적합하게 행사를 조율하였다. 동자승이 참여하는 불교 공식행사는 포교의 역할을 해야 하고 유아들이 지켜야 할 예절도 많다. 따라서 연구소와 사찰은 협의하에 유아들에게 적합한 불교행사를 진행하였다. 사찰측과 교사가 협의하고 평가한 내용은 다음 일정에 반영하였다.

공식적인 불교행사는 신체 활동이 왕성한 6, 7세 남아들에게 인내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유아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바깥놀이나 신체활동과 같은 동적인 활동을 하고, 명상과 같은 정적인 활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병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교사들은 유아들에게 한계를 설정하여 최대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유아들이 스스로 약속을 지키도록 배려하고 기다리며 자유를 주려고 노력하였다. 차츰 유아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로 신뢰하였다. 정적인 활동과 동적인 활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은 유아들이 공식적인 포교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예불은 부처님 만나기, 삼배, 삼귀의, 반야심경, 사홍서원 순서로 진행하여, 유아들에게는 어렵고 지루할 수 있다. 특히 새벽예불은 유아들이 실행하기 어렵다. 하지만 교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불과 관련된 활동을 연계하였고, 새벽예불은 참석하지 않고 사시예불에 참석하였다. 잠들기 전에 반야심경을 낭송을 하거나 대웅전 앞을 지날 때 삼배 드리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예불관련 활동을 연계함으로써 유아들은 예불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교사 저널 및 일지 평가, 5월 18일>



<그림 10>
예불



<그림 11> 좋지 않은 마음 해소
하기 - 풍선 놀이



<그림 12> 몸과 마음 움직임
- 아침체조

2. 단기출가 동자승 프로젝트 사례 결과

첫째, 이해심과 자비심 실천은 기본생활 습관과 인성을 바르게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유아들이 불성의 싹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었다. 불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부처를 이룰 근본 성품 혹은 덕성’을³⁴⁾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스님이 되었다는 자신감으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행함으로써 기본생활 습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친구를 배려하고 배푸는 모습에서 유아들도 바른 인성으로 부처님을 닮아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

예불을 올리는 아이들을 보고 제작진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길고 어려운 말로 된 불경을 아이들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었던 것, 맑고 툭툭한 목소리로 불경을 외는 동자승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방송국 PD 후기, 6월 12일>

세현이 가족은 원래 불교신자가 아닌데 세현이가 단기출가를 다녀와서 한글 반야심경을 직접 사경하고, 부처님에 대한 TV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교 영화나 불교방송을 직접 선택하여 시청하고 불자가 아닌 사람도 포교하려고 합니다. <오세현 고모할머니 인터뷰, 7월 12일>

저녁에 교사의 손을 꼭 잡고 잠을 자던 민철이도 친구의 손을 잡고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하는 이준이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태현이도 스스로 옷을 입고 벗는 것이 어려웠는데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정리 한다. 일상생활에서 스님이 되었다는 자신감은 하루가 다르게 유아들을 변화하게 하였다.

<교사 저널, 5월 20일>

둘째, 산책 및 텃밭 가꾸기 등 자연 친화적 통합 활동이 불교 가르침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유아들은 생명의 귀중함과 노작의 즐거움을 느꼈다. 심은 모종에 손수 쓴 이름표를 꽂아주고,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꾸며 잘 자라기를 기다리면서 인내심을 갖게 되었으며,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알았다. 또한 수확한 작물로 요리도 하고, 자신이 심은

34) 권은주, 앞의 책, 13쪽

모종을 그림으로 그려서 전시 하면서 노작의 즐거움을 느꼈다.

바깥놀이 및 산책은 오감으로 자연의 생명을 느끼고 체험하며 사색, 여유, 자유, 자연스러움, 즐거움, 만남으로 연계되어 통합적 활동이 가능하였다. 식물이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서 고마움을 느끼고, 무서워하던 지렁이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생물임을 알게 되었다. 불교에서 우주와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는 ‘동일체심’ 즉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고, 살아 있는 생명을 아끼고 자비로 실천한다는 ‘불살생’의 의미도 실천하였다.



<그림 13>
모종 심기



<그림 14> 내가 심은
나무 그리기



<그림 15> 수확한
채소 먹기



<그림 16> 수확한
채소로 요리활동

셋째, 음식을 감사히 먹게 되었고, 모든 생명과 존재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사찰음식은 두부나 콩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채소류가 주를 이룬다. 유아들은 처음에는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도 없다고 먹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식사 시간의 명상’으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었다. 음식을 먹기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음을 알고 고마움을 느꼈다.

간식시간에도 음식 하나하나의 감사함을 생각하며 만다라를 구성하거나 음식 명상을 하며 먹었어요.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로 요리하는 시간에도 생명력이 깃든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기에 충분했어요. 유아들이 좋아하지 않는 나물로 주먹밥을 해주었는데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날까봐 걱정할 정도로 잘 먹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조계사에 오면 이거 또 해주세요. 선생님이 해준 주먹밥이 최고로 맛있어요.”라고 표현하는데 흐뭇했어요. 민규는 햄인 줄 알고 먹었던 당근을 소리 나게 씹으며 “이거 햄 아니고 당근이에요. 근데 맛있어요.”라고 하면서 처음에 안 먹으려고 하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사 인터뷰, 5월 14일>

넷째, 자녀가 출가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에서 부모들도 불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자기성장의 시간이 되었다고 하였다. 유아들이 사찰에 입방하는 동안 부모도 불교교리를 공유하였고, 명상, 자신의 장점 찾기, 이해심과 자비심 나누기, 신체 접촉 게임, 21배 등 초기 적응 활동을 통해서 불교에 기초한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하였다. 프로젝트 사후에도 메일이나 전화로 관계형성이 계속되었고, 부모의 성장은 유아의 양육에 도움이 되었고, 유아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정에서도 지속하게 하였다.

엄마와 신체 접촉을 하며 “엄마의 심장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요.”라고 표현하고, 21배를 하며 “엄마도 우리랑 똑같이 절하는 거 힘들겠다.”라며 서로 이해하게 되었다. 사랑스러운 한 마디에 교사들은 감동했다.

<에피소드 전사 및 교사저널, 5월 7일>



<그림 17> 유리병
속에 담긴 마음



<그림 18>
한마음그리기



<그림 19>
두부경단만들기



<그림 20>
부모님과 21배

다섯째, 동자승은 일반인과 방송관계자에게도 순수함을 주며 포교역할을 하였다. 조계사를 찾은 사람들은 동자승을 보며 환희롭고 순수한 마음에 불성을 저절로 갖게 된다고 하였고, 라디오 취재진 ‘꼬마달마’ 팀은 단기출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자승과 한 달 가까이 동고동락하며 다음과 같은 후기를 남겼다.

참 아이들은 신비하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순수하고 귀여운 말들을 하는 것인지. ‘꼬마달마’는 내가 왜 라디오 PD가 되고 싶어 했었는지, 그 어렵קות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었다. 이번 다큐 제작을 통해 아이들의 순수함을 그대로 담아서 전했다는 생각에 매우 기쁘다. 나를 놀랍게 한 꼬마 동자승들의 순수함은 전파를 타고 날아가 청취자의 하루를 조금이나마 더 따스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 방송의 시간과 공간을 채우는 동자승들의 선하고 유쾌한 목소리들이 내가 이 방송을 통해 담고 싶었던 것 들이다. 보고 싶다. 달마들. 사랑한다. 달마들. 언젠가 이 인연의 향기가 다시 한 번 달기를 바라며.

<방송국 PD 후기, 6월 12일>

여섯째,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유아들은 불교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으며, 사회·정서적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변화 내용을 면담, 전화, 문자, 설문지 등으로 공유하였다.

성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습관이 바뀌어 스스로 잘 먹고 많이 먹어 달덩이가 되었습니다. 표현력이 적극적이며 밝아져서 엄마 입장에서 큰 과제를 풀었습니다. 첫째로 동생에 대한 상실감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정신력과 마음 행동력이 생겨 엄마로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셔서 감동입니다. 또한 부처님과 가까워져 마음 수행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다시 한 번 자녀 양육에 있어서 후회뿐이었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뿌듯해 하고 있습니다. 출가 전처럼 타성적으로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엄마의 수행공부도 따라야함을 깨달았습니다.

<박성배 모 문자, 6월 5일>

출가 기간 동안 조계사를 오가며 아는 스님께서 유효를 보았는데 엄마와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얼굴이었다고 유호 마음 편하게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엄마로서 반성하고 깨닫는 바가 많았습니다. 욕하는 마음을 단속하려고 애를 쓰지만, 좀 더 인내가 필요합니다. 봉투에 담아주신 유호를 위한 말씀 잊지 않고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유호 모 설문지, 7월 16일>

민규는 출가 전에 동생이 뭐 가지고 가면 밀치기 대장이었는데 이제는 말로 해요. 미운 말도 안하고 화도 안내고 정말 기특합니다. 어젯밤에는 조계사 스님들과 선생님들이 보고 싶어서 늦게까지 울었어요. 법회에 가면 스님께 머리 길었다고 깎아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스님이 사주신 신발도 작아지면 못 신는다고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어디서 사셨는지 알려주세요.

<오민규 모 인터뷰, 7월 12일>

출가 이후 차분해진 모습을 볼 때마다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면서도 기특합니다. 아침이면 일어나서 라디오에 방송된 CD를 들으며 출가 때를 추억합니다. 태현이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태현 모 문자, 6월 10일>

Ⅵ.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15년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에서 진행하는 단기출가 동자승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사례를 연구하였다.

단기출가 동자승 프로젝트 특성 상 공식적인 포교 역할도 해야 하고, 유아 인성교육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두 가지를 함께 다루는 것은 쉽지 않지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교사와 사찰측이 유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조율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로 신뢰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즉 불교 이념을 유아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발달 특성에 맞게 종교적 차원에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유아들은 매 순간을 알아차림 명상으로 모든 활동을 시작하고, 이해심과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은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스스로 행함으로써 행복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또한 타인에게도 그런 마음을 전달하며 포교의 역할도 하였다. 유아기에 불교를 만나서 불교에 관심이 많아지고, 불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프로젝트 후반부로 갈수록 목표하였던 자아개념을 갖게 되었고, 무엇이든지 스스로 하려는 자율성이 생기면서 기본생활습관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한편, 방문하는 곳에서 동자승에게 대하는 지나친 관심은 프로그램의 모형에서 제시한 매 순간 알아차림 명상, 이해심과 자비심 키우기, 감사함 나누기 등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방문지에서 준비한 동자승에게 주는 선물은 무소유 절제의 개념을 실천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따라서 방문지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받은 선물을 재 보시하여 베푸는 것에 대한 행복함을 유아들이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교사는 유아들의 모델링이 되어야한다는 신념으로 유아들과 함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며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유아들은 교사를 동일시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교사는 합숙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교사가 아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해심과 자비심을 베풀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게 되었다.

부모들은 유아들이 태어났을 때 경이로움과 소중함을 느꼈던 것을 회상하며 단기출가 기간에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고마움을 느꼈다. 자녀의 단기출가 기간 부모도 틈나한 스님의 마음 정원 가꾸기 교재를 공유하며 프로그램의 일부를 함께 수행하고, 유아들의 변화를 보며 자신도 성장하는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부모의 성장은 유아의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하게 하며 앞으로 유아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유아의 양육 환경을 대표하는 어머니와 교육환경으로 대표되는 교사 등 주변 인물들이 갖는 종교적 심리상태는 유아의 종교행동 발달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지닌다는 연구³⁵⁾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인들도 동자승을 보며 ‘천진불’이라 느꼈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함으로써 포교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처음부터 프로젝트를 함께한 방송국 PD는 인터뷰를 통해서 불자는 아니었지만 단기간의 직접 체험이 백 마디 말로 배우는 것보다 유아들에게 훨씬 소중한 가르침을 주었으리라 믿는다고 하였고, 본인도 함께 하면서 불교이념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불교는 우리 전통문화임에도 불구하고 무겁고 어려운 종교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본 프로젝트는 사회에서 불교이념을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실천할 수 있는 포교의 한 가지 방법이 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이 단기출가 동자승 프로젝트를 마치고 유아, 교사, 부모, 스님은 매 순간 알아차림 명상, 이해심과 자비심 키우기, 감사함 나누기 등 불교이념을 실천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긍정적인 인성 변화를 가져왔다. 즉 프로젝트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부처님품안에서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본 연구가 짧은 기간 동안 4, 5세 남아만을 대상으로 9명 소수의 표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보편성은 부족하다. 하지만 현재 사찰에서 시행중인 단기출가 동자승 행사는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로 소수의 사찰에서만 운영하며 그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잠자리, 목욕 등 합숙의 어려움으로 남녀유아 공동운영이 어렵고, 스님과 자원봉사자만의 인력으로만 진행하는 것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유아의 전반적인 심리발달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단기출가 동자승 프로젝트가 정착된다면 더 많은 유아가 체험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최근 출가자의 숫자가 감소한

35) 김혜순, 「선교이해도와 수행태도간의 관계- 중립대학교의 유아교육학 전공생들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2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138-141쪽

다는데 대안으로 어린이 포교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프로젝트의 불교에 기초한 유아인성교육 프로그램은 동자승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유아법회 및 일반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단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유아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유아의 심리발달과 인성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유아교사 경험이 있고 유아발달 특성을 잘 아는 전문적인 지식과 바른 인성을 갖춘 유아교육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전국 주요 사찰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단기출가 동자승 프로젝트의 체계적이고 교육적인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자료집을 제작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대정장』12, 대반열반경 권 25.

강경구, 「불교의 행복론 고찰 : 달라이 라마를 중심으로」, 『인간과 문화 연구』15, 부산: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2009.

고윤희, 김숙령,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 및 영유아 탄력성이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33(2), 서울: 한국유아교육학회, 2013.

권은주, 『어린이들의 불성 발현을 위한 불교유치원 통합교육활동 프로그램』, 경기: 양서원, 2001.

권대원, 「불교 생명존중사상의 유아교육적 적용」, 『아동권리연구』4(2), 경기: 한국아동권리학회, 2000.

권대원, 한혜경,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에 나타난 아동교육 연구」, 『한국불교학』 50, 서울: 불교학연구회, 2008.

김석권, 「인성교육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 『교육정책포럼』 26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5.

김영옥, 송혜린, 이현미, 『21세기 변화에 적합한 영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서울: 다음세대, 2005.

김용표, 「종교의 자유와 종교교육」,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김혜순, 「선교이해도와 수행태도간의 관계- 종립대학교의 유아교육학 전공생들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2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_____, 「종교성과 신행이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종교교육학연구』 29,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_____,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방향 탐색」, 『한국불교상담학회지』15, 경주: 한국불교상담학회, 2013.

문미옥, 이해상, 민행난, 『한국전통문화와 유아교육』, 경기: 양서원, 2004.

박선영, 『불교의 교육사상』, 경기: 동화출판공사, 1981.

신양재, 권은주, 「고려시대의 아동교육」, 『유아교육연구』24(1), 서울: 한국유아교육학회, 2013.

양옥승, 「유아교육과정의 재개념화 :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에서 유치원 자유놀이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연구』20(1), 서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2.

유영란, 「불교 어린이법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이수경, 『(어린이 인성교육을 위한) 자연명상 프로그램』, 경기: 양서원, 2006.

이수경a, 「불교유아교육을 위한 원장·교사 워크샵」,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3회, 경주: 동국대학교 교사연수, 2005.

- 임상도, 김윤미, 「불교 유아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교육과학연구』45(4),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14.
- 임재택, 하정연, 조채영, 노진형, 홍정애, 강현진, 김미옥, 『선생님 텃밭가요』, 경기: 양서원, 2000.
- 제은경, 「어린이 범죄 현황 조사 및 프로그램 모형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조수동, 「여래장과 일천제에 관한 연구」, 『철학론총』3, 대구: 영남철학회, 1987, 21쪽.
- 차미경, 「幼兒의 注意 集中力 향상을 위한 佛敎의 禪활동 프로그램」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틱낫한, *Planting Seeds*, 이수경, 혜주스님, 『틱낫한 스님의 마음 정원 가꾸기』, 서울: 판미동, 2013.
- 한태식(보광), 「대한불교조계종의 출가자 현황과 출가 제도의 개선방안」, 『대각사상』17, 서울: 대각사상연구원, 2012.
- 황옥자, 「불교와 아동교육」, 『종교교육학연구』30,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 Kim. Y. P, *Meaning of freedom in religious and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23, 2006.
- Kweon. E. J, *Introduction of buddhism pedology*. 경기: 양서원, 1998.
- Lee, S. K, *A Study of a Korean Kindergarten's use of Buddhist-Oriented 'Meditation Art Projects' to Increase Creative Art Expression in Painting*. Buddhist Studies Review, 28(1), 2011.
- <조계사 ‘꼬마 불자’ 7명 식발하고 ‘출가’>, 《연합뉴스》, 1999년 4월 29일, 2015. 7. 21 검색.
- http://www.president.go.kr/policy/assignment02.php?ass_no=2&ass_sub_no=2. 2015년 7월 3일 검색.

원고접수일 : 2016년 1월 7일 심사일: 2016년 1월 29일 게재확정일: 2016년 2월 10일

연구자소개 : 박부숙

- ① 전공: 유아예술 / 소속: 동국대학교 불교아동보육학과 강사, 불교아동교육연구소 연구원
- ② 관심영역: 유아교육, 통합적 예술교육, 인성교육
- ③ 주요논저: 「민화감상과 연계한 예술통합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전통문화에 기초한 예술통합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적 그림 표현력과 전통 인지와 선호도에 미치는 효과」(공저)
- ④ E-mail: tree7462@hanmail.net

연구자소개 : 이수경

- ① 전공: 유아예술 / 소속: 동국대학교 불교아동보육학과 교수, 불교아동교육연구소 소장
 - ② 관심영역: 유아교육, 통합적 예술교육, 인성교육, 유아명상,
 - ③ 주요논저: 「어린이 인성교육을 위한 자연명상 프로그램」, 「명상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창의적 그림 표현에 미치는 효과」, 「생태 미술활동을 위한 유아 명상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례연구」, 「총체적 미술접근을 통한 유아 통합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A Study of a Korean Kindergarten's use of Buddhist-Oriented 'Meditation Art Projects' to Increase Creative art Expression in Painting」외 다수
 - ④ E-mail: lsk@mail.dongguk.ac.kr
-

Abstract

A Study on the Buddhist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Project of Short-term Entering the Buddhist Priesthood as Young Monks

Park, Boosook · Lee, Sukyung

Dongguk University

This research conducted a Buddhist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called "Cultivating a happy mind in Buddha's arms" from April 28 to May 26, targeting nine boys in their age 4 to 5, who participated in the 2015 Jogyesa Temple young monk project, along with the case analyses.

The program consists of the following process. First, young monks were encouraged to become aware and meditate as a daily routine. Second, Buddhist monks and exper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tegrated Buddhism with early childhood education by mutually complementing each other. Third, developmentally appropriate Buddhistic events were conducted, considering children'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The project resulted in a number of findings: first, practicing an understanding and merciful heart helped children to cultivate Buddhistic mind, correcting their basic life habits and characters. Second, integrative nature-friendly activities gave children the pleasure of laborious works, making them understand the preciousness of life. Third, they learned to eat gratefully, once again, recognizing the preciousness of all life. Fourth, their enterings to the Buddhist priesthood gave their parents self-growth time to grow in the Buddhist faith and positive mind. Fifth, it caused young monks to propagate Buddhism to the public. Lastly, children continued to have Buddhistic minds, even after they returned home, showing positive changes in their socio-emotional behavior.

Key Words : Buddhism, early childhood education, personality, short-term entering the Buddhist priesthood, and young monk